



- 일시 : 1995. 1. 25
- 장소 : 사무총장실
- 대담자 : 이은희 출판과장

**“현실감 있는 건강관리사업,
직원복지 향상에 최선”**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신임 성정웅 사무총장이 지난 1월 13일, 정식으로 취임했다. 20여년간의 협회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도 확실한 건협정신을 다져 온 성 총장이, 건협을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한다.

-이 : 우선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총장님께서서는 우리 협회에서 20여년을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선출 되셨는데, 소감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성총장 : 저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해 주신 임한중 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국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라고 승인하여 주신 보건복지부와 여러가지로 저를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무총장의 선출은 본 협회 이사님들의 만장일치로 오랫동안 협회에서 근무해 온 사람이 선출되었다는데서 나름대로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협회의 실정을 잘 알고 또 그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 등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이처럼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 협회의 목적 사업인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성총장 : 우리 협회의 최고의 지향점은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선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상별 검진 프로그램 개발, 역학적 조사연구사업 확대와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감있는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주력해서 대내외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본 협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성총장 : 우선,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교육으로 지역별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보건교육 자료 개발 보급, 언론매체를 이용한 계몽방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사회 소외계층(양로원·고아원 등)에 대한 무료 검진 확대를, 셋째로는 특수 기생충 관리·건강검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확대 등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계층별 건강검사 프로그램 개발, 특수 검사 항목 확대 등과 함께, 지부마다 건강증진센터를 연차적으로 설립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국제교류사업도 기히 실시한 일본·대만은 물론 중국 및 동남아시아까지 확대 실시하여 국가간의 기술 및 정보교류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 직원 복지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성총장 : 직원 복지 향상은 내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의 주체가 바로 직원들이니까요.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 총장님께서 직원 복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직원들에게 바

라는 점도 있으실텐데요.

-성총장 : 제가 직원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근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호인화단결하여 업무에 임해 주실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일 결산을 생활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희망찬 계획을, 낮에는 계획에 따른 성실한 실천을, 그리고 저녁에는 계획과 실천을 평가하면서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건협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실천·평가·반성은 무엇보다도 업무에 대한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와 마음이 짐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직원 복지 향상은 내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발전은 직원들의 인화단결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성총장 : 우리 협회에 있어 작년, 올해는 정

말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해 30주년을 맞아 협회 사업을 평가·반성했고,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많은 건협인들이 열심히 일한 덕택으로 오늘의 건협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애정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또 아낌없는 배전의 지도 편달과 충고도 부탁드립니다. ㉔